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3, No. 3, pp.7-19, August 31, 2017.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17.3.3.7
JCCT 2017-8-2

한국의 정형시인 정격시조 구조 연구
A Study on the Structure of Rated Sijo which is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박인과*
Park In-kwa*

요 약 한국의 정형시는 정격시조다. 이 정격시조는 고시조의 24수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면 한국의 정형시가 왜 정격시조이어야 하는가. 이것은 정격시조만이 정형의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한 틀에 의해 자연스럽게 맞춰진 정격시조는 한국인의 고유한 숨결과 절제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격시조의 인체에 대한 문학치료적 효용이 일반적인 시조나 시보다 뛰어나다. 하이쿠가 음수율의 정격으로 서술의 끝을 생략하고 각각의 독자에게 서로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면 정격시조는 음수율의 정격으로 서술의 완결미를 구축함으로써 인체의 정격 신호의 방향에 일정한 틀을 제시한다. 그래서 정격시조는 일정한 방향으로 협력된 독자의 서로 다른 상상력을 유도함으로써 인류의 화합과 소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정형시인 정격시조는 인류의 소통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학의 틀로써 우리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격시조의 가치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정격시조에 대한 연구가 이젠 시작되어야 하고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한국의 정형시, 정격시조, 하이쿠, 음수율의 정격, 서술의 완결미, 부호화, 문학치료

Abstract Korean standard poetry with a fixed form are Rated Sijo. These Rated Sijos can be found in the 24 number of Gosijos. Then, why should Korean standard poetry be Rated Sijo? This is because only the Rated Sijo has a fixed form frame. Rated Sijo naturally tailored by a rigid framework is the best representation of Koreans' unique breath and temperament. Also, Rated Sijo is superior to general sijo or poem in terms of literary therapeutic utility for human body. If Haiku omits the end of narrative with the rated number of sounds and invites different imaginations to each reader, the Rated Sijo presents a certain frame to the direction of the human's rated signal by constructing the essence of the narrative with the rated number of sounds.
Thus, the Rated Sijo suggests the way of human harmony and communication by inducing different imagination of readers cooperating in a certain direction. So, the famous poem of Korea, Rated Sijo, presents our future as a framework of literature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human communication and quality of life. Therefore, research to preserve and develop the value of the Rated Sijo should now be initiated and continued.

Key Words : Korean standard Poetry with a fixed form, Rated Sijo, Haiku, rated number of sounds, completion of narration, Encoding, Literary Therapy

*정회원,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접수일자: 2017년 5월 10일, 수정완료일자: 2017년 7월 11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8월 5일
* 이 논문은 BK21 플러스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 미래인재 육성사업단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Received: 10 May, 2017/ Revised: 11 July, 2017
Accepted: 5 August, 2017
*Corresponding Author: born59@hanmail.net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Korea

Ⅰ. 서 론

한국인의 위대한 유산인 시조는 한국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조는 세계의 어느 문학형태보다도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숨결이며 절제의 미학의 극치이며 문학치료의 기능이 뛰어난 시조가 세계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 이제 한국인은 시조의 특성을 세계에 알려 세계인들과의 감정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왜냐하면 시조에 깃들인 한국인의 감성과 지혜를 알아야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적 지향성을 알게 되어 적절한 방법으로 세계인들이 한국인들과 질적인 소통을 더욱 체계화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시조는 현대에 한국인들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창작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는 정격시조에 관해서 논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정격시조가 시조의 본류이며 다른 유형의 시조들은 본류에 가지를 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시조는 전이적인 치유의 콘텐츠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특히 정격시조가 더욱 그런 것으로 연구되었다. 고시조의 정격시조는 전이되어 오늘날 치유의 콘텐츠로써 다양한 창작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다.

본 연구자가 바라보는 정격시조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한 형태와 정격의 생리적 리듬을 통한 치유의 콘텐츠를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격시조의 틀의 특성과 함께 그 미래지향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별한 한국인의 유산인 정격시조에 대한 본 연구는 본 연구자의 “논문들”[6,7,8,9,10,11,12,13,14]의 연장선상에 있다.

Ⅱ. 정격시조의 흔적

1. 고시조에 나타난 정격시조

정격시조는 김흥규 외 6인이 편저한 『고시조대전 古時調大全』(2012)에 24수가 전해지고 있다.[1]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격시조를 쓰는 시인들이 많아졌다. 그 이유는 정격시조가 삶에 기쁨을 주고 문학치료를 위한 “부호화”[1,2,3,5]의 감정을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문단의 이영대는 10,000수 이상의 감정의 색조로 정격시조를 창작하고 있고, 많은 시인들이 계속 하루에 수십 작품의 색깔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매일 정격시조 쓰기를 계속하면서 정격시조와 삶이 함께 동반되어 있는 감정의 음표들을 정격으로 또한 치유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격에 맞는 정격시조가 인체의 생체적인 감정 신호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고시조대전에 나와 있는 정격시조 24수는 모두 장의 끝이 서술형으로 되어있다. 이는 시조의 각 장이 서술형을 지향한다는 자료가 된다. 그것은 시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한 것이며 감정의 발화에 대한 기능을 갖추기 위함이다.

다음은 한국인의 위대한 유산인 시조를 총망라한 『고시조대전 古時調大全』(2012)[4]에 나오는 표제작 정격시조 24수로서 한국의 정형시다.

건곤이 유의하여 장부를 내었으되
세월은 무정하여 백발을 재촉하니
아마도 성주홍은을 못 갚을까 하노라
—『고시조대전』 46쪽의 정격시조, 작자미상

공명을 취할 것가 취하고 버릴 것가
버리면 또 올 것가 또 온다 받을 것가
아마도 취사양난은 이뿐인가 하노라
—『고시조대전』 69쪽의 정격시조, 작자미상

글 하다 백년 살며 활 쏘다 똑 죽을까
염파도 늙어 죽고 왕발도 조사하네
우리는 비문비무니 백년 살까 하노라
—『고시조대전』 106쪽의 정격시조, 작자미상

기러기 아니 나니 편지를 뉘 전하리
시름이 가득하니 꿈인들 이룰쏜가
매일에 노친 얼굴이 눈에 삼삼 하여라
—『고시조대전』 116쪽의 정격시조, 李聃命 作

길가에 꽃이 피니 저마다 임자로다

1) 김흥규・이형대・이상원・김용찬・권순회・신경숙・박규홍 편저(2012), 『고시조대전古時調大全』,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삼촌에 일 오던들 내 먼저 꺾을런가
두어라 노류장화니 한할 줄이 있으랴
—『고시조대전』 123쪽의 정격시조, 趙載浩 作

꽃 지고 속잎 나니 녹음이 솟아난다
솔가지 꺾어 내어 유서를 쓸어치고
취하여 겨우 든 잠을 환우앵에 깨괘라
—『고시조대전』 139쪽의 정격시조, 작자미상

늙은이 벗이 없어 전려에 돌아와서
금서를 흩어 놓고 태평을 노래하니
아마도 성세일민은 나뿐인가 하노라
—『고시조대전』 252쪽의 정격시조, 傲南軒 作

당시에 예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어디 가 다니다가 이제야 돌아온고
이제나 돌아오나니 연 데 마음 말으리
—『고시조대전』 268쪽의 정격시조, 李滉 作

도행도 없는 땅에 하물며 매화러냐
해마다 꺾은 가지 서신에 부쳐오니
어즈버 고원 춘색을 친히 본듯 하여라
—『고시조대전』 295쪽의 정격시조, 尹陽來 作

동산에 올라 보니 고국도 멀서이고
태행이 어드메오 구름이 머흘레라
갈수록 애일촌심이 여임심연 하여라
—『고시조대전』 302쪽의 정격시조, 李聃命 作

매산각 적막한데 초색만 푸르렀고
천수릉 비었으니 찬 구름 잠겼어라
어즈버 고국흥폐를 못내 슬퍼 하노라
—『고시조대전』 346쪽의 정격시조, 작자미상

물외에 벗님네야 풍경은 좋다 하나
내 몸이 국민이라 임금을 잊을 것가
어느 곳 막비왕토니 그를 헤어 보시소
—『고시조대전』 375쪽의 정격시조, 金壽長 作

밭 가는 저 할아바 문진을 웃지 마라
사람이 다외어서 조수를 벗할 것가
마음에 잊지 못하여 오락가락 하노라
—『고시조대전』 401쪽의 정격시조, 周世鵬 作

백이는 주려 죽고 석숭은 가아멸고
안연은 조사하고 도척이 오래 사니
아마도 세상인사는 나는 몰라 하노라
—『고시조대전』 421쪽의 정격시조, 작자미상

소리는 혹 있은들 마음이 이러하랴
마음은 혹 있은들 소리를 뉘 하나니
마음이 소리에 나니 그를 좋아 하노라
—『고시조대전』 569쪽의 정격시조, 尹善道 作

아소당 추수루에 주박을 걸고 보니
남포에 구름 뜨고 서산에 비 지거다
석양에 청가세악은 교주태평 하더라
—『고시조대전』 634쪽의 정격시조, 安玟英 作

우연히 만난 임을 덧없이 여의관저
장부의 간장인들 구태여 굳을쏘냐
아마도 오주 달빛을 못 잊을까 하노라
—『고시조대전』 760쪽의 정격시조, 徐文澤 作

위의도 거룩하고 예모도 너를시고
희학을 좋아하나 학함이 되올쏘냐
아마도 성덕지선을 못 잊을까 하노라
—『고시조대전』 777쪽의 정격시조, 權益隆 作

유란이 재곡하니 자연이 듣기 좋아
백운이 재산하니 자연이 보기 좋아
이 중에 피미일인을 더욱 잊지 못하얘
—『고시조대전』 777쪽의 정격시조, 李滉 作

육년을 그리다가 오늘은 만나 보니
홍안은 어디 가고 백발만 부치 나니
가뜩이 시름한 간에 눈물겨워 하노라
—『고시조대전』 783쪽의 정격시조, 姜復中 作

율려에 걸맞추어 곡보를 뇌어 내니
관현의 갖은 소리 유량도 유량하다
저으기 성대풍류를 이어 볼까 하노라
—『고시조대전』 784쪽의 정격시조, 咸和鎭 作

이는 저 외다 하고 저는 이 외다 하네
매일에 하는 일이 이 싸움 뿐이로다
이 중에 고립무조는 임이신가 하노라

—『고시조대전』 789쪽의 정격시조, 李德一 作

일 심어 늦이 피니 군자의 덕이로다
풍상에 아니 지니 열사의 절이로다
아마도 이내 고절을 알 이 없어 하노라

—『고시조대전』 848쪽의 정격시조, 작자미상

청풍이 소슬 부니 낮잠이 절로 깬다
호온자 일어 앉아 옛글과 말을 하니
어즈버 북창희황을 꿈에 보듯 하여라

—『고시조대전』 1057쪽의 정격시조, 金得研 作

2. 오늘날의 정격시조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들로 인하여 정격시조가 많은 치유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제 이와 같이 치유 효과가 강력한 정격시조가 고시조로부터 오늘날까지 창작되어 옴으로써 보존되어온 치유의 틀에 의해 창작되는 오늘날의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고시조의 틀과 맥을 같이하는 박인과의 정격시조 중 일부이다. 이러한 정격시조들을 보면서 정격시조의 정격적이고 치유적인 틀을 논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창작의 형태의 시조들과 타자의 이름으로 창작한 이름시조들의 일부를 소개하려고 한다. 오늘날의 일반적인 정격시조는 이러한 형식으로 많이 창작된다. 고시조에 나타나는 정격시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의 정형시인 정격시조가 창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부록 참조).

시리고 달콤한 그, 바람이 외출하네
기쁨의 주어들이 행간에 스며들고
언제나 푸른 하늘도 그대처럼 깊구나

기억의 흰 이빨로 사랑을 검색하네
눈물의 키워드로 긴 어둠 두드리니
아침 해 후드득 날아, 너와 나를 읊노나

그대의 숲에 서면 내 눈도 맑아져요
창가에 기대 있던 우울도 지나가고
그대가 한 번 웃으면 온 세상이 꽃이죠

수평선 활을 당겨 튕겨난 햇덩이야
돌담 및 어둠이 낀 절망도 지워놓고
언제나 사랑을 품은 아침 가득 물었네

말라서 비틀어진 줄기로 사랑하네
눈 쌓인 골짜기에 맑은 향 품어내며
더덕이 겨울 심장을 가만가만 감싸네

꽃방울 빗방울이 하나로 모여져요
그대는 꽃이라서 눈물도 꽃물같아
빗물은 스륵스르륵 문풍지를 적셔요

긴 긴 밤 아픔이니 이별도 꽃이 되네
그리움 한 잎 두 잎 알차게 다져넣고
고통을 조이고 조여 기쁨으로 벙그네

사랑이 빗물처럼 흥건히 고여있네
눈물도 그리움에 아프게 고여있고
언제나 슬픈 그대는 꽃잎 팡팡 펼치네

이별의 틈을 지나 그대가 건너오네
영겁의 시냅스를 그립게 적재하고
사랑이 부호화되어 문장 하나 이루네

신나는 간밤꿈이 줄줄이 발화되네
산바람 강바람이 얘기꽃 풀어내어
들풀들 꽃을 피우네 꿈틀꿈틀 피우네

비단결 고운입술 자랑턴 그녀였어
시간의 사잇길로 홀연히 떠나더니
소쩍새 울던 그 숲에 으름 다래 열리네

맑은 그 물결따라 조약돌 뒷짐 지네
다슬기 슬기롭게 그 물길 거스르고
그대도 노란 꽃 피워 꿈틀대며 서있네

새겨진 기억마다 새롭게 피어나서
바람꽃 함초롬히 벼랑에 웃고 있지
끊겨진 시간 뒤에도 하얀 눈은 내리지

그렇게 보고싶던 그대도 강물이네
시간이 물 흐르듯 청석골 지나가고
바람이 휘몰아치네, 눈물 창창 잠기네

다음에는 박인과가 창작한 이름시조를 소개한다. 이 또한 한국의 정형시다. 3개의 행으로 이루어진 시조는 이름시조를 창작하기에 적절하다. 이름시조는 타자에게 희망과 기쁨과 소통의 존재감을 부호화한다.

임의향 품은뜻이 꿈결로 피어나죠
숙려의 계절지나 오롯이 색을 틔워
현현한 그리움의 꽃 그댈 향해 피우죠
-임숙현에 대한 이름시조

전부터 라일락의 폼새가 예쁘지요
양쪽을 훑어보고 아래위 짚어봐도
우듬지 향을 우려낸 그대 제일 예뻐요
-전양우에 대한 이름시조

이맘때 때까치가 긴 꿈을 차고 나네
길들을 힘껏물어 꿈결에 걸어두니
순수한 아침의 해로 힘껏힘껏 빛나네
-이길순에 대한 이름시조

서슬한 심장으로 노랗게 숨죽이다
진정코 변치않을 향기를 품었다가
순전한 그대앞에서 피룽피룽 날리네
-서진순에 대한 이름시조

김서린 봉오리에 태양이 뜨는구나
정정한 대나무가 절개를 높이듯이
자신의 콧대 높이어 희게 희게 피누나
-김정자에 대한 이름시조

조신한 그리움이 촉촉히 배어나네
은은한 마음으로 꽃대를 힘껏 밀고
애련한 가지 흔들어 깊은 향을 내누나
-조은애에 대한 이름시조

전투에 능하시고 지혜의 샘도 깊네
위아래 보살피며 말씀의 꽃을 피워
영원한 그의 나라가 님의 뜰에 있네요
-전위영에 대한 이름시조

김씨의 창가에는 잎새들 한창이죠
순수한 물관으로 태양도 받아들여
임위한 열매 맺고서 넉넉함이 깃들죠
-김순임에 대한 이름시조

황금의 문맥으로 그대는 존재하네
인내의 행간으로 향기가 만발하고
영롱한 문장의 숲에 꽃말 가득 채우네
-황인영에 대한 이름시조

노련한 글솜씨로 진리를 담아내죠
정갈한 수식어로 현재를 포획하여
희망찬 영원의 날을 예약하여 두지요
-노정희에 대한 이름시조

강물이 흐른다고 강들이 흐르나요
미쁜 그 마음들도 흐르고 흐르지만
순수한 사랑의 꿈은 항상 살아 있지요
-강미순에 대한 이름시조

조숙한 그 아픔이 곧 이별 한다네요
미려한 그대의 꽃 향기를 품어내고
선명한 사랑의 틀로 활짝 웃고 있네요
-조미선에 대한 이름시조

이렇게 그대 곁에 꽃비가 날리네요
영영히 잊지 못할 추억이 내리네요
대대로 사랑이란 건 그리움과 같지요
-이영대에 대한 이름시조

전하는 그 언어에 절망이 물러가죠
선하고 강한 뜻이 생명의 나이테죠
경전에 새긴 언약이 영원으로 향하죠
-전선경에 대한 이름시조

강산이 바뀌어도 그대는 사랑이죠
미려한 글의 틀로 우울을 다스리니
순정한 토씨의 꿈이 끝도 없이 설레죠
-강미순에 대한 이름시조

Ⅲ. 정격시조의 형태

본 연구자가 주장하는 한국의 정형시인 정격시조

는 정격의 유기체로써 정격의 유기체인 인체와 잘 어울리는 틀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정격시조 쓰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정격시조는 고시조의 흔적을 따라 오늘날까지 창작되는 공유된 형식에 관련된다. 그러면서 무분별하지 않는 정격으로 時節歌調의 틀을 갖추고 있다.

고시조와 현대시조를 살펴보았을 때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시조가 정형시다. 여기서 제시하는 "마디"는 글자의 묶음에 의해 구분되거나 율독에 의해 묶여지는 글자들의 마디다. 그래서 띄어쓰기와는 관계가 없다. 율독은 자연스럽게 12개의 작은 마디들의 형식으로 유도된다. 그리고 정격시조는 "3자, 4자, 3자, 4자 / 3자, 4자, 3자, 4자 / 3자, 5자, 4자, 3자"의 형식을 갖춘다.

1. 3개의 큰 마디들

정격시조는 3개의 큰 마디들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기존에 말하는 초장, 중장 그리고 종장이라고 하는 것들이다. 이 3개의 큰 마디들이 서로 독립적이면서 연관되어 있고 마지막 마디를 향하여 그 의미가 집중되고 있다. 즉 마지막 큰 마디의 존재를 위해 첫째 큰 마디와 둘째 큰 마디가 준비되는 것이다.

2. 6개의 중간 마디들

정격시조는 6개의 중간 마디들로 이루어져 있다. 큰 마디들이 각각 2개의 중간 마디들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 마디들은 각각 2개의 작은 마디들로 이루어져 있다. 중간 마디는 기존의 구(句)를 지칭한다.

3. 12개의 작은 마디들

정격시조는 12개의 작은 마디들로 되어있는데 큰 마디들마다 각각 4개의 작은 마디들이 있다. 그런데 이 12개의 작은 마디들은 12개의 소리를 내보내는 마음의 피리 구멍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시조는 12개의 음의 작은 마디들로 연주되는 노래의 틀이다. 그런 이유로 시조는 풀피리와 같이 단조로우면서도 깊은 정격의 노래를 읊는 악기다. 그래서 시조는 12개의 마음의 음표들로 이루어진 풍류 건반으로써 時節歌調가 되어 시간의 12마디를 연주하며 풍류하는 것이다. 작은 마디는 기존의 음보(音步)를 지칭한다.

4. 정격시조 마디들의 자수

정격시조 마디들의 자수는 첫째 큰 마디에서 둘째 큰 마디까지 "3자, 4자"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3+4"는 7이므로 한 주의 7일이라는 시간의 마디와 같다. 그리고 셋째 큰 마디에서는 파격을 주기 위해 3에서 5로 급격히 자수가 확장되고 다시 4에서 3으로 서서히 줄어든다. 이 4와 3은 "3자, 4자"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이는 시조 첫째 작은 마디의 3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수미쌍관의 자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시조의 12번째 작은 마디가 첫 번째 작은 마디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으로써 시계의 시침이 계속하여 돌면서 12번째 마디에서 첫 번째 마디로 건너가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격시조는 마디들을 징검다리 삼아 시간의 여울을 건너는 時節歌調다.

5. 정격시조의 전체 자수

정격시조의 자수는 43자이어야 한다. 그것은 첫째 큰 마디의 자수가 "3자, 4자, 3자, 4자", 둘째 큰 마디의 자수가 "3자, 4자, 3자, 4자", 셋째 큰 마디의 자수가 "3자, 5자, 4자, 3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자수들을 다 합하면 43이 된다. 이러한 자수의 틀을 고수하는 것이 정격시조다. 이러한 자수의 틀이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으면서 인체에 정격으로 부호화되기 때문에 정격시조는 친인체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6. 서술형의 틀

정격시조를 이루는 3개의 큰 마디들은 각각 그 끝에서 서술형을 지향한다. 서술형으로 독립되어 있거나 큰 마디 끝이 연결어미로 연결되어 시조 3개의 큰 마디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또한, 시조의 중간 마디들도 끝에서 서술형을 지향하기도 한다.

Ⅳ. 논의 및 제언

인간의 모든 감정 및 정서는 전기적 신호의 작용으로 형성된다. 그것은 창작 활동에도 적용된다. 그런데 문장이 혹은 언어가 거꾸로 이 전기적 신호의 작용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문장으로 인해 안위감과 평안함 혹은 용기 및 희망 등의 감정을 찾아가게 된다. 이것은 문학의 치유 기능 때문이다.

그래서 문학의 틀이 치유의 기능을 극대화 할 때

더욱 인체에서는 치유의 시스템이 극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체의 신경전달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적 흐름과 그 격이 잘 어울리는 인문학적 콘텐츠가 필요하다. 이때 정격시조가 그 콘텐츠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체와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문학의 틀로써 정격시조는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능이 있는 정격시조의 문장이 인체에 접근할 때 그 치유의 코드가 인체의 기능과 격에 맞게 전이되어 인체와 소통하기 쉽다. 그래서 인체를 조절하는 정격시조의 문장은 인체의 생물학적 격과 잘 맞게 되어 있는 것이다. 정격시조는 인체의 치유의 격에 잘 맞추어져 있는 문학형식으로써 인문학적 치유의 코드들을 정격으로 발생하는 치유의 제너레이더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정격시조의 문자적 흐름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정격시조의 3·4·3·4조의 문자적 흐름이 인체의 생명의 흐름과 같이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반전을 이루는 3·5·4·3의 흐름으로 생체적인 활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정격시조의 큰 마디들은 마치 뉴런처럼 독립적이기 위해 서술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3개의 큰 마디들은 3차원 세계에서의 삶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마디들을 함유하기에 알맞다. 그러면서 큰 마디에서 4개의 작은 마디들은 삶의 시간의 4개의 계절처럼 계절의 마디들을 은유한다. 그리고 12개의 작은 마디들은 삶의 시간으로 직조되는 12개의 음(音)들의 마디 혹은 시계의 12개의 시간의 간극처럼 시간의 마디들을 함유하고 있다. 그래서 정격시조는 삶의 시간을 노래하는 時節歌調에 알맞은 틀로써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정격시조는 친자연적이고 또한, 자연에 친자연적으로 깃들어 사는 인간에게도 잘 맞게 되어 친인체적이다.

하이쿠가 음수율의 정격으로 서술의 끝을 생략해 놓고 각각의 독자에게 서로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면, 정격시조는 음수율의 정격으로 서술의 완결미를 추구함으로써 인체의 부호화의 방향에 일정한 틀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서로 다른 상상력과 함께 인류의 화합과 소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격시조에서는 수많은 화합과 소통의 코드들이 다양하게 부호화된다. 하이쿠는 많은 창작행위에서 서술의 기능을 제한하기도 하지만 정격시조는 서술의 기능을 공유함으로써 정격의 리듬으로 상대의 감정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다.

고시조에 나타나는 정격시조의 형태가 현재에 그 부흥을 이루고 있다. 고시조의 정격시조는 엄격한 의미에서 단 24수만 전해지지만, 이제 현재에는 수만 수의 정격시조 작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중이다. 고시조와 현대시조의 전체 작품들보다 더 많이 창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작품들 속에서 정격시조의 중요한 가치와 존재론적 현주소를 알 수 있으며 치유의 코드들을 쏟아내는 정격시조의 자유로운 틀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격시조를 규정하고 발전시킴으로써 한국인의 긍지와 세계인에 대한 사랑을 펼쳐나가야 한다. 그러려면 정격시조의 인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격시조의 세계화와 함께 정격시조에 대한 정형의 교육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Ⅴ. 결 론

인류는 새로운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시대는 문장이 인체를 치료하는 시대이다. 그런데 선행연구들로 인하여 현재 수없이 창작되고 있는 정격시조의 문장들이 강력한 치유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은 정격시조의 엄격하고 자유로운 틀에 기인한다.

그러한 정격시조는 3개의 큰 마디들로 이루어져 있다. 3개의 큰 마디들은 6개의 중간 마디들로 이루어져 있다. 6개의 중간 마디들은 12개의 작은 마디들로 이루어져 있다. 12개의 작은 마디들은 7개의 글자들이 반복되며 43자의 자수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큰 마디는 “3자, 4자, 3자, 4자”, 그리고 둘째 큰 마디도 “3자, 4자, 3자, 4자”, 셋째 큰 마디는 “3자, 5자, 4자, 3자”로 자수의 정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인체의 치유적인 생체적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이쿠가 음수율의 정격으로 서술의 끝을 생략해 놓고 각각의 독자에게 서로 다른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면, 정격시조는 음수율의 정격으로 서술의 완결미를 구축함으로써 인체의 정격 신호의 방향에 일정한 틀을 제시한다. 그래서 정격시조는 협력된 일정한 방향으로의 독자들의 서로 다른 상상력을 유도함으로써 인류의 화합과 소통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격시조는 그 틀이 인체의 생리적 신호를 자유롭고 격에 맞게 활성화시켜 인체의 안정과 치유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격시조 쓰기의 저변확대와 함께 정격시조 연구를 심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Baars Bernard J and Gage Nicole M,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1E, B. G. Kang trans, Kyobo Books, 83-184, 2010.

[2] Bryan Kolb, Whishaw Q lan, An Introduction to BRAIN AND BEHAVIOR, H. T. Kim, M. S. Kim, J. J. Kim co-trans, Sigma Press, 151, 153, 310, 309-310, 2012.

[3] Cooper Geoffrey M and Hausman Robert E, THE CELL A Molecular Approach, J. S. Jeon et al, trans, World Science, 11, 2011.

[4] H. G. Kim, H. T. Lee, S. W. Lee, Y. C. Kim, S. H. Kwon, K. S. Shin, G. H. Park compiled, Perfection of Ancient Korean Sijo, Seoul: National Cultural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2012.

[5] H. S. Min, K. J. Chang, O. R. Kwon, S. Y. Lee, H. M. Lee, H. A. Kim(2011), Human physiology, Yangseowon, 59, 2011.

[6] Park In-Kwa,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y Using Sijo",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1, pp. 37-64, 2015.

[7] Park In-Kwa, "A study on Transfer-Literatherapy", of the Korean Journal of Literatherapy, Vol. 5, No. 1, pp. 85-106, 2015.

[8] Park In-Kwa, "Structuration of literatherapy transition",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1, No. 2, pp. 21-36, 2015.

[9] Park In-Kwa, "A Study on the Right Writings for Sijo - the Korean Poetry of a Fixed Form",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2, No. 1, pp. 13-33, 2016.

[10] Park In-Kwa, A Study on the Literature Therapeutic Use of Sijo.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11] Park In-Kwa, "A Study of Literary Therapy on the Rated Sijo as a Conductor that Works the Motherboard of Mind", of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2, No. 4, pp. 31-40, 2016.

[12] Park In-Kwa, "Literary Therapeutic Mechanism Analysis in which the Rated Sijo is Encoded as a Battery of Life",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4, No. 4, pp. 45-50, 2016.

[13] Park In-Kwa, "Sijo Literature Therapeutic Research on Structuring of Emotion-DNA",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1, pp. 26-31, 2017.

[14] Park In-Kwa, "A Study on Sijo Literature Therapy structuralized in the Rated Codon", of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Vol. 5, No. 2, pp. 9-18, 2017.

부 록

하얀 달 숲에 앉아 둥지를 틀고 있네
산사의 이 아침엔 모든게 고요한데
태양이 오물거리며 사뿐사뿐 눈뜨네

그립고 그립다가 그대를 바라봐요
멍울진 꽃망울로 땅깊게 버티고서
흐르고 흐르는 물에 향기 풀풀 그립죠

쌀쌀한 꽃송이로 그녀가 왔다 가네
햇빛과 달빛으로 향기를 반겼건만
외로운 꽃가지마다 하나둘씩 떠나네

시간은 안개비로 내 안에 가득하네
우울은 늘 거기에 맞물려 아려오고
한번쯤 보고픈 너는 활짝 웃고 있구나

낯익은 네 모습이 낯설게 보여진다
때로는 햇볕 받고 해납작 웃으련만
어째서 우울한 창을 매일 매일 닦느냐

그 깊은 그리움이 무언지 알 수 없네
아파도 말이 없이 한없이 슬프더니
기어코 몸을 누이고 낮게 낮게 떠가네

태양을 거스르며 햇빛을 통겨내네
싱싱한 물결 골라 산골물 연주하니
삐리리 삐롱 삐로롱 목청도 참 좋구나

때로는 엄청나게 힘든일 있으리라
예기치 못한고통 견디기 힘들리라
죽도록 슬픔의 노래 읊어내야 하리라

소요산 올라보니 물소리 싱그럽네
그대가 함께하니 새들도 신이나고
나무가 한물머금고 초록초록 하구나

비릿한 해조음이 언제나 그리워라
아래로 아래로만 햇빛도 속살거려
화안한 세상 하나가 싱싱하게 설레네

찬바람 그대곁에 흰 이빨 옹알대네
햇빛의 걸음마다 속잎들 피어나고
창이 난 골목 너머로 아지랑이 꿈꾸네

그 깊은 빛깔들을 알 수가 없을진데
섬들과 바다 사이 물길도 비껴가고
어이해 난파된 나만 홀로 둥둥 떠 가네

바람은 쌀랑쌀랑 하늘은 말랑말랑
파도는 찰싹찰싹 물결은 살랑살랑
오늘도 그대 앞에서 그리움은 퐁퐁퐁

차가운 혈관으로 호흡이 들뜨네요
내밀한 그리움을 옹글게 비벼내어
노랗게 터지는 봄을 어찌 우리 잊나요

돌무덤 아픈 꽃이 하얗게 흔들려요
그대가 누운 땅이 긴잠에 빠졌는데
하늘은 반홍시처럼 말랑말랑 하네유

심심한 메뚜기가 갸웃갸웃 망을 보고
흰 나비 나풀나풀 콧등을 간질이네
호랑이 참지 못하고 데굴데굴 구르네

힘겨운 직장에서 때로는 고달프죠
폭염과 열대야에 때로는 고통이죠
그러나 휴가철 되면 때로는 또 재밌죠

따뜻한 네 속살이 오늘은 더 그립다
까맣게 타던 가슴 딱지를 걷어내고
아궁속 군고구마가 왠지 먹고 자프다

하루는 안개려니 생각타 지내보네
뜰뜰한 앞가슴에 송곳니 솟아뿔고
길가던 덧쥐 혼자만 레알 혼자 떨리네

가랑비 발바닥이 겨울 창 두드리네
안개숲 끝을 가다 꿈결에 깨어보니
그대가 어느 틈엔가 빗방울로 환하네

그리운 마음따라 하늘도 파래지고
샘솟는 사랑따라 꽃들도 지천이네
맴도는 벌나비들이 꿈도 펼쳐 노니네

둥지가 화안하게 하얀 알 품고있네
냇물도 조잘대며 꿈얘기 끝이 없고
상큼한 햇빛 이빨도 은비늘을 닮았네

안경을 벗고 보니 새로운 세상이네
그대도 더 예쁘고 이웃도 꽃밭이네
화사한 햇빛 하나도 배실배실 웃기네

한강은 길게길게 온 하늘 비틀다가
비들이 수직으로 흐르다 흩뿌리다
뚝섬에 앉은 꽃잎에 하염없이 내리다

바람을 엮어가는 운장산 계곡이네
절경의 풍경화가 흥건한 초록인데
그대가 응큼하게도 하이얗게 반기네

그립다 말을하면 더욱더 그리웁고
잊고자 기를 써도 잊히지 아니하네
그리운 계절이 가도 골목골목 그립네

하얗게 고통스런 시간의 뼈다귀네
아프게 쓴 오늘을 찢었다 다시 보고
파랗게 우는 강물로 짙게 짙게 젖누나

싱그런 풀잎들은 창가에 서성이네
다시 또 돋아오는 새 날이 당당하니
세월도 이젠 내 곁에 무릎 꿇고 있구나

시골 길 언저리에 뱀들에 많았어요
실뱀들 또아리가 실뭉치 같았지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발갛게 타오르는 생생한 기억이네
나무도 몸을 태워 저렇게 붉어지면
쟁쟁한 시간을 건너 사랑 또한 보겠네

그녀가 너무 아파 나 역시 힘빠지네
새겨둔 낱말들이 엇갈려 길 떠나고
하늘은 빙빙빙 돌다 말만 많아 쏟기네

겨울이 제아무리 고집이 세다지만
폭풍에 단련이 된 내 뿌릴 감당할까
언제든 두팔벌려서 맞장 뜨자 카잖나

너는 왜 그렇게도 하얗게 웃고있니
달님의 팬티처럼 하늘을 물고 날아
억세게 심심하단말 고로코롬 하느냐

오늘은 왜 이렇게 그대가 보고플까
보고 또 자꾸봐도 지독한 갈증인데
깊은 숲 나의 꽃말은 그립고 또 그립네

동면의 산 어귀에 음악회 한창이네
저마다 그리울 건 땅 밑에 감춰두고
부동(不動)의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꿈꾸네

하얗게 온 그대가 오늘도 눈시리네
언젠간 또 홀연히 떠나갈 것이지만
그래도 꽃핀 현재가 향기 더욱 새롭네

정신이 없는 꿈이 파랗게 질려오네
숲길을 나비처럼 찾고 또 찾다보면
달개비 하얀 숨결이 향기 내어 필거나

사람은 누구나가 이별도 하련만은
괘씸한 속사정이 어쩔 수 없나보네
한없이 괘씸하여서 미련 하나 없구나

그대의 꽃향기에 온몸이 그윽하네
암술과 수술 모두 영원을 품고 있어
때로는 극한 고통도 치유될 수 있다네

오수를 즐기는데 전화벨 크게 우네
긴잠을 벗겨내고 실눈을 뜨고 보니
섬진강 삼장육구가 팬티한장 펼치네

떠나는 풍경들은 언제나 곁에 있죠
떠가는 태양마저 날마다 곁에 있죠
그런데 그대는 어이 떠나 아니 오나요

그대가 보고싶어 산마루 올라봐요
물까치 때까치가 태양을 기워가며
새파란 더덕 한 잎이 향기 마냥 깊네요

그대가 떠난 숲을 혼자서 걸어가네
산꽃과 바람꽃이 쓸쓸히 흔들리네
어디서 소쩍새 울어 강물 더욱 푸르네

고통의 나무 하나 바람에 흔들리네
지나온 세월들로 나이테 깊어지고
그대가 지난 풀섶에 꿀향 담고 서있네

깊고도 깊은밤에 기도를 올려보네
내삶의 중심에서 말씀을 그려보네
언제나 꿈과 희망이 문장 속에 꿈꾸네

그리운 마음따라 하늘도 파래지고
샘솟는 사랑따라 꽃들도 지천이네
맴도는 벌나비들이 꿈도 펼쳐 노니네

올곧게 지켜내는 사랑은 아름답죠
독사가 물어뜯고 세상이 조롱해도
로마를 향한 그 꿈이 바울에게 있지요

우르를 지나면서 요단이 가깝지요
우물의 큰 슬픔이 때로는 힘들어도
야곱의 환도뼈 같은 그 언약을 믿지요

거위가 여우에게 '여우야' 말했어요
여우는 거위에게 '겨우야' 말했어요
그러자 그 거위는 또 속았다고 했어요

땅콩이 완두콩을 받으며 놀았어요
화가난 메주콩도 땅콩을 받았어요.
겁이난 그 완두콩은 가슴 콩콩 거렸죠.

땅벌이 날아와서 말벌을 물었어요
말벌도 화가나서 땅벌을 물었어요
땅벌은 땅에 처박고 말벌은 말 없어요

개미가 거미에게 따지고 들었어요
거미줄 작작 풀고 길을 좀 내자고요
거미는 작작 좀 물고 길 트라고 했지요

전쟁 후 신월리에 가재가 많았어요
개구리 짓이겨서 낚시를 드리우면
하많은 한의 이빨들 곧추서고 있었죠

땡땡한 땡감들이 제철을 잊고 있죠
탱탱한 탱자들도 산문에 얼어붙고
똥그란 토끼 몇 마리 굴을 찾고 있지요

뻔나무 뽕나무가 한철을 버팅겼죠
버팅긴 그 골목에 고드름 줄줄 서고
눈 오는 산골마을에 내 발 푹푹 빠져요

흰 꿈과 빨간 꿈이 헌 데서 마주치다
뻥 뚫린 신작로가 꿈처럼 질주하고
꿈들이 섞인 곳에서 또 한 꿈이 싹트다

돼지가 웃으면서 산보를 나왔어요
아이가 올라타니 돼지가 물었어요
옆에서 돼지감자도 키득키득 웃지요

운장산 끝에 올라 아래를 바라보다
계곡은 잠들었고 구름은 갇혀있네
졸졸졸 흐르는 얘기, 그조차도 잠기네

오이꽃 노랗게도 가슴에 피었네요
우리도 사랑하면 그렇게 꽃필까요
언젠가 꽃하나 피워 삶의 향기 내봐요

길 끊겨 물 보이고 물 끊겨 산 보이네
갔어도 안 간 듯이 안가도 갔던 듯이
아프게 끊겼던 길은 다시 시작 되려니

어디서 바둑이가 깽깽깽 울고 있네
덤불에 갇혔는지 급하게 헤쳐보니
심심한 깽깽이꽃이 깽깽깽깽 웃노니

휘파람 불며불며 산길을 돌아가요
나무와 나무 사이 바위도 꿈쩍 않고
아무도 없는 계곡을 심심하게 가지요

철새가 떠나가도 산은 늘 변함없지
무너진 산골짝에 다시 또 물 흐르듯
사랑이 깨져갔어도 그도 사랑 이려니

깨금은 째려보고 솔잎은 쏘아보네
바람은 휘어져서 계속해 간지르니
신월리 산가재들이 집게발만 벌리네

보리똥 빨갛도록 서럽고 그리웁네
계곡이 물을 내려 아픔을 씻겨내고
그대도 눈물 반짝여 조약돌로 웃노나

조리개 조여오던 고뇌의 강을 지나
성군이 사랑하여 산천이 질투하죠
화가 난 계곡 바람도 잎새 휭휭 날리죠

이마음 뜨거우니 산천이 화로이네
경마들 경주처럼 꽃들이 앞을 다퉈
재너머 해뜰마을에 꽃불 틔워 놨구나

조금씩 그댈 열어 세상을 펼치네요
수려한 산과들에 초록도 드리우고
현현한 그대 꽃술에 꽃향 마냥 풍기죠

김과 톳 흔들리는 바다속 풍경이죠
진주빛 산호 옆에 바위꽃 피워놓고
희번덕 물살 가르며 참치 갈치 다투죠

이맘때 초장에선 새싹들 움트고요
수정의 눈빛처럼 중장이 즐겁더니
종장엔 종소리조차 마냥 반짝 이지요

권하여 놀아보니 한 삶이 기쁨일세
선한 그 꽃향으로 온 누리 덮어가니
복이야 절로 생겨나 우리 가문 최고지

최상의 인내심이 최고의 믿음이죠
종내는 믿음만이 사랑을 쟁취하죠
빈궁한 사랑일망정 거룩함을 택하죠

김서린 간밤 꿈엔 그대가 보이지요
순수의 기억으로 풍경이 깊어지면
임처럼 웃는 저 달도 꿈결로만 떠오죠

문구가 예사롭지 않게도 흘러가네
장구히 말씀들이 흐르는 강물일세
율격이 한술 더 떠서 굽이굽이 답하네

마당에 산철쭉이 재밌게 놀고 있죠
경전의 의미처럼 새들도 날아와서
언제나 가갸거겨고 글자놀이 하지요

전부 다 주었어도 내겐 늘 부족했지
선물이 많은데도 내겐 늘 슬펐었지
경홀히 여길 대상이 바로 나는 아닌가

이처럼 그리움이 깊게도 여울지니
선명한 잎새들로 꽃들도 싱싱하죠
녀름이 아니 왔어도 향기 낙낙 하지요

조금씩 그 안개가 걷히고 있다네요
미련한 그리움이 희망도 품어내고
선물인 그대의 꽃이 활짝 피어 있네요

양동이 짊어지고 물길러 다녔지요
정자에 쉬어가며 길손과 웃어보고
철마다 피는 꽃길을 마구 뛰어 다녔죠

김씨네 담장에서 발갛게 익었구나
순수한 결을 삭혀 온 계절 들어앉혀
임자가 없을 때에도 까치밥은 달렸네

최전방 애증들의 전극을 탐색하네
은은한 음수율의 간극을 힘껏 당겨
희열로 강한 출력이 감전 되어 흐르네

심심한 산골짝에 바람이 불어오네
선연한 그 계절이 싹튀워 꽃피울까
주인은 계곡 깊숙히 너를 심어 놓았네

이노래 저 노래로 율격에 힘이 솟네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대의 사랑이네
균등한 정격 음표로 온 우주를 감싸네

유연한 산릉선이 풍채도 당당하네
황제의 기품처럼 청산이 높고 깊어
우물에 비친 저 달도 격을 세워 넘누나

박꽃이 하도 희어 저 달이 좋아했지
이렇게 온 계절을 둘이서 놀더니만
갑돌네 처마 끝으로 박이 하나 열리네

순백의 춤사위는 그대의 향기라네
청하늘 비쳐들고 나비도 숨어들어
사랑이 몸트는 것을 엿보고자 하노니

간밤 내 끌어안고 한 꿈을 꽃피우다
갓잡은 생선처럼 내 삶이 싱싱하다
문풍지 울던 틈으로 해도 하나 낚이네

허기진 슬픔으로 실눈을 뜨고보니
설화가 요염하게 알몸을 드러내네
어째서 기웃거리며 나를희롱 하느뇨

떨리는 그 입술에 잉걸불 번져가네
알몸의 고백들에 하늘도 담가 놓고
빨갛게 울음을 토해 똥글똥글 삐지네

터엉빈 사랑 하나 파랗게 경기하다
갈증난 이 하루가 켕기고 엉키더니
벗튕긴 버스 하나가 바퀴 쿵쿵 굴리네

싱싱한 시간 하나 내곁에 앉아있네
미소를 머금고서 살며시 속삭이네
언제나 들풀꽃처럼 나와 함께 머무네

빗방울 알몸으로 술술술 내려오네
하늘이 몸을 풀어 가벼이 하련거지
씽씽씽 푸른 바람도 향기 풀려 날으네

그대의 그리움은 아직도 싱싱하죠
강처럼 흐르는 저 혈맥도 아름답고
눈물로 뛰는 심장에 사랑 가득 하군요

시간의 이빨들이 날 먼저 알았구나
탄생 전 어둠에도 늘 함께 있었었고
지금도 없는 듯 살아 내 온몸을 새기네

깊숙히 처박혀서 꼼짝을 하지 않네
털옷을 입었으니 추위도 마다잖고
아가야 터럭겡이야 나와 놀지 않으련

실바람 투정 따라 섬 끝을 가보았네
흰물결 수평선이 그녀를 탐하누나
화창한 파스텔화네, 마냥 푸른 괌이네

아프게 떠나가도 사랑은 남아있죠
떠남의 기억 중에 사랑이 최고이니
사랑이 떠남을 찾아 떠밀리어 오리니

아침은 해어지화(解語之花) 피우며 술렁이네
새침한 홍영여순(紅英如脣) 이오니 요염(妖艶)하여
수련(睡蓮)도 화중군자(花中君子)인 너를 읊고 피노라

밤마다 동그랗게 바람을 품어왔네
노랗게 몸을 벗고 햇빛을 몽땅 받아
오늘은 용기를 내어 그댈 불러 보려네

시퍼런 그리움이 그대를 감시하고
동학사 참나무가 참꽃을 뽑고 있네
사랑은 블랙홀처럼 자꾸자꾸 빠지네

시간도 알을 깔까 곰곰히 생각하네
파란 숲 나무에는 열매가 달려있고
언제나 변하지 않는 꿈이 반짝 거리네

밤마다 옹알이를 참아낸 너였구나
꽃잎을 밀어내고 파랗게 매달리다
드디어 감춘 속내를 저리 붉게 내미네

바람이 그 바람이 웃으며 불어온다
언제나 꿈속에서 날 울린 바람이다
뻥 뚫린 시간 가득히 안개비로 꽂힌다

비고 빈 그리움이 빈 강에 침습하다
그대는 끈질기게 한 꿈을 떠나잖고
호올로 눈물 안개로 하이얗게 떨리네

하루가 감 하나의 의미로 떨어질래
슬픔과 고통 모두 농익어 아픔일래
그러나 그 아픔 또한 환희처럼 머물래

바람과 연애한 게 누군지 찾고 있죠
꽃들도 궁금하여 꿀향을 내미는데
저홀로 매달린 감이 홍시 되어 웃네요

허공을 재어가며 꽃 피운 너로구나
폭풍우 한바탕에 온 가지 꺾이고도
청청한 하늘을 향해 향기 한 줌 날리네

시간의 나무 위에 당당히 꽂혔구나
바람이 불어와서 네 깃을 흔들어도
하늘을 사랑하는 넌 깊이 안겨 있구나

긴 밤내 창문으로 한없이 바라보네
혹시나 그가 언제 왔다가 갔나보네
멍 뚫린 어둠 한쪽에 꽃을 피워 놓았네

노랗게 피어있는 아침이 아름답네
정답게 바라보는 꽃들이 미소짓네
희열은 맘 안 가득히 우울우울 맴도네

사랑은 기쁨인데 끝없는 아픔이네
눈물도 아픔인데 끝없는 기쁨이라
어느날 사랑이 가도 그게 사랑 이라네

그대의 치마폭에 고향이 담겨있네
우리집 초가밑에 꽃나무 싹트더니
어느새 꽃향, 그윽함, 그대 향길 품었네

왜이리 부끄럽고 얼굴이 발개질까
나목에 걸터앉아 옛님을 그렸더니
까치도 날래 날아와 쫑알쫑알 거리네

죽음의 체관으로 그대는 고통이죠
그래도 슬픔들을 끝까지 인내하면
생명의 이온채널이 빼꼼빼꼼 열리죠

새콤한 사랑이면 눈감고 음미하고
달콤한 사랑이면 입술로 음미하고
어쩌다 이별이 와도 새콤달콤 하겠죠

한때는 깨밭에서 단잠을 청했었네
그대의 깻잎향이 하늘을 닦아내면
어디서 휘파람새가 피롱피롱 울었네

그녀는 반짝이는 황금빛 실존이지
시간은 멈칫멈칫 한밤내 취해있고
기어이 뜨는 하늘이 쌍큼쌍큼 하구나